현대불교
2020년 4월 22일 수요일 제 1290 호

COVID 19
셀프힐링

새 화관 쓴 눈부신 아침은 소슬한 종교

사라지는 날, 주(週), 해(年) 속에서 별들의 잔해가 뒹군다.

저 억겁 어둠 속에서 솟는 눈부신 아침을 맞으라.

어제의 실패를, 어제의 죽음을, 어제의 절망을 등지고

나무들은 새파란 대기 속에서 기쁨으로 일어선다.

아궁이엔 불길이 솟고, 집은 자라나며, 꽃들은 새 화관(花冠)을 쓴다.

높이 솟은 나무들과 노래하는 새들 속에서

맞는 새로운 아침은 우리의 소슬한 종교다.

우리는 아침마다 날씨와 바다를 배우기 위하여 새로 태어나야 한다.

글=장석주 시인 · 사진=박재완 기자

〈셀프힐링 관련 특집 2 · 3면〉